

		<h1>보 도 자 료</h1>		
		배 포 일 2018. 8. 31.(금)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해양생태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명노현, 사무관 안준영, 주무관 정성근 • ☎ (044)200-5310, 5315, 5317 	
	해양환경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태팀장 황인서, 과장 정회인 • ☎ (02)3498-7151, 7158 	
보 도 일 시		2018년 9월 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생존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가시해마’ 를 지켜주세요 - 해수부, 9월의 보호해양생물로 ‘가시해마’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약재로서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무분별하게 남획*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가시해마’를 9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 수산자원량에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마구 잡는 일

해마는 생김새가 말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가 아닌 어류에 속한다. 가시해마는 그 이름처럼 머리와 몸의 마디마디 사이에 가늘고 뾰족한 가시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마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가시를 지녔으며, 주둥이가 비교적 긴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가시해마의 몸길이는 약 10~13cm로, 외국 수역에서 관찰되는 가시해마보다 대체적으로 크기가 작은 편이다.

가시해마는 우리나라 남해안, 일본 서부 및 남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을 걸쳐 광범위한 수역에 서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9월 남해안의 여수 주변 연안에서 단 2마리만이 발견되는 등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종이다.

더욱이 가시해마는 깨끗한 아열대 바다의 잘피밭을 주 서식지로 삼는 특성을 지녀, 바닷물의 오염과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진행됨에 따라 발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가시해마를 비롯한 해마는 1569년 출간된 명나라 의학서적인 '본초강목(本草綱目)' 등에서 정력과 임신 등에 효능이 있다고 언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차별적으로 남획되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해마의 효능은 현재까지도 임상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으며, 신비로운 생김새와 더불어 수컷이 알을 품고 키우는 독특한 번식방법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가시해마를 국제적 멸종취약종으로 지정하였으며, 해양수산부도 2012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가시해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정부의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채취, 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의 훼손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어획 시 간혹 혼획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된 가시해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지켜주세요!!
이달의 보호해양생물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시해마

생존의 가시밭길을 걷다

가시해마는 가늘고 뾰족한 가시들을 머리와 몸에 지니고 있어 여러 해마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띈다. 과거 약재로 쓰이면서 남획이 이루어졌고, 연안개발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가시해마가 멸종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가시해마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포획·채취·훼손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우리나라 남해안, 일본 서부 및 남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에 걸쳐 광범위한 서식수역을 가진다. 관찰이 매우 어려운 종으로 바닥이 부드럽고 산호와 해면(海綿) 또는 해조류가 풍성한 15m 내의 얕은 연안지역에 서식한다.

Hippocampus histrix

